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부풀린 분양가 돌려줘” 광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봇물

서울 로펌도 광주행... 설명회 열고 입주민 소송인단 모집
신가 부영 등 1만여명 소송 진행 중... 권리 되찾기 관심

아파트 건설사들을 상대로 한 서민들의 ‘반란’이 잇따르고 있다. 분양가를 부풀려 터무니없게 책정한 이득을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시장을 겨냥한 서울 로펌들의 광주행도 이어지고 있다.

◇“부풀려진 분양가 돌려받자” 소송 움직임=1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모아미래도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일정 기간 임대료 보다 분양 전환 받은 과정에서 비싸게 산정된 분양전환가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 얘기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광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현황

아파트명	참여 인원
광산구	
신가부영	942
첨단부영1차	519
첨단부영2차	489
첨단부영3차	289
신창부영1차	719
신창부영2차	1128
운남주공6차	대법원소송
운남주공7차	900
운남주공8차	1056
운남주공9차	1125
운남주공10차	1074
신기도시공사	227
서구	
금호도시공사	244
금호부영1차(마재마을)	494
풍암부영2차(신암마을)	679
금호호반리젠시빌	368
남구	
방림휴먼시아	245
합계	10498

건설사가 서민들을 상대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산정가 상한기준을 초과해 분양가를 높게 산정했다는 법원 판단이 있을 경우 부당하게 책정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송에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떠들석하다.

현재 입주민 649세대 중 130세대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인접한 용봉 2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민 120세대도 소송에 나설 조짐이다.

당장, 서울 지역 법무법인도 광주로 내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상황이다.

광산구 신가호반 1차 아파트 510세대 주민들과 2차 아파트 222세대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다음달 예정된 ‘부당이득금

목=18일 광주지법과 5개 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신창동 신가부영 아파트 942세대를 비롯, 광주 광산·서구·남구 아파트 입주민 1만498명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입주민들이 ㈜부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시도시공사 등 5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만 17건에 이른다.

광산구의 경우 첨단·신창·신가부영아파트 주민들과 운남주공 7~10차·신가도시공사 아파트 주민 등 846세대가 소송에 나선 상태다. 신가도시공사 아파트 주민 227명은 최근 광주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2억2000만원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에서도 마재·풍암 부영아파트·금호도시공사·금호호반리젠시빌 주민 1785세대가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소송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남구 방림동 휴먼시아 주민 245명도 부당이득금 2억4500만원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아파트 건설에 들어간 건축비를 적용한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드러나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6월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 찾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결과에 주목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헌혈하는 공무원들 18일 오전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을지연습에 참가중인 공무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감전 사고’ 광주 소방본부 매뉴얼 보강 돌입

동료 소방관 심리 치료도

광주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들이 ‘패닉’ 상태다. 동료 소방관이 절연(絶緣) 장비도 없이 2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선주에 올라 별집을 제거하려다 감전 사고를 당한 당하면서다. 열악한 장비와 부실한 대응 매뉴얼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감전 예방장비도 없이 목숨을 걸고 출동하는 현실(광주일보 8월 18일 6면)과 관련, 출동 매뉴얼을 보완하는 한편, 동료의 사고 소식에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대원들을 위해 심리 치료를 실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는 우선 2만2900볼트가 흐르는 고압선에 올랐다가 감전 사고를 당한 노모(39) 소방장과 함께 근무하는 서부소방서 급호 119안전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사를 동원,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

동료 소방관의 갑작스런 사고와 열악한 장비를 보유한 채 재난 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대원들의 위기 의식이 표출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서부소방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실했던 출동 매뉴얼도 보완키로 했다.

소방본부는 고압 전기가 흐르는 전선주 별집 제거 출동 시 한국 전력과 함께 출동기로 하는 등 세부 출동 방침을 마련해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소방본부는 감전 사고 전까지만 해도 고압 전기 관련 신고 출동 시 이뤄져야 할 한국전력과 공조 체계 등도 구축하지 않았고 출동대원들의 고압 전기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노소방장이 임원중인 서울 한전병원을 찾아 위로했다. 노 소방장의 경우 현재 아내가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간호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져 동료 소방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서민들이 봉이냐” 주민세 인상에 항의 전화 빗발

광주 서구청 세원관리팀 사무실은 최근 전화벨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 4명이 걸려온 전화를 돌려받기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민원전화를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다.

전화기를 집어 들면 대뜸 “누구 마음대로 세금을 올렸느냐”, “경기도 안 좋은데 서민들이 봉이냐”라며 화가 잔뜩 난 목소리가 들린다.

다른 구청 세원관리팀도 마찬가지다. 각 구 세원관리팀 담당 공무원들은 최근 하루 평균 1500통 이상의 주민세 인상관련 항의전화를 받고 있다. 심지어 “당장 내리지 않으면 쫓아가겠다”는 협박성 민원전화도 끊이지 않는다는 게 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광주 구청 세원관리팀 하루 1500통 업무마비 항의·협박성 전화에 민원 업무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각 구는 지난 11월~12월 ‘광주시 시세 조례개정안’에 따라 16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주민세 고지서를 각 세대에 보냈다.

지난 1일자로 시행된 시의 인상안을 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 4500원→1만 원 ▲개인사업자 주민세 5만 원→7만500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 5만~50만 원→7만5000원~75만 원 등이다. 올해 주민세 부과금액은 모두 104억

9200만 원. 인상 전보다 46억9500만 원을 더 걷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 소리는 이어졌다. 주민세 인상안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수십 년 만에 오로 고지서를 받은 탓이다.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원인 박모(54)씨는 “대기업 법인세나 올려라”고 지적했고, 또다른 민원인 정모(38)씨는 “메르스다 뭐다 해서 혼란스러운 시국에 한술 부어 안나온다. 장사도 안 되는데 정말...”이라며 주민세 인상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차량 덩치 커졌는데 주차장 규격은 그대로

옆 차량 찍는 ‘문콕’ 사고 5년새 2배 급증

차량 덩치가 커졌는데 주차구획 공간은 넓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주차장 사고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주의하게 차량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옆면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구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현대해상이 접수한 자동차보험 주차장 사고 94만3329건과 대형마트·대형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625대를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문콕’으로 보험처리된 사고는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5

년 사이에 97.8%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험업계 전체에서 이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도 13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문콕’ 사고가 급증한 것은 레저용차량(RV)을 중심으로 차량 덩치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주차면 규격은 25년째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도교통 통계국리의 국내 승용차 규모별 구성비를 보면 2015년 5월 현재 중·대형 차량 비중이 85.2%에 달한다. 특히 대형 차량 비중은 2000년 8.9%에서 올해 5월 26.2%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주차장 규격은 일반형이 1990년 2.3m×5.0m로 개정된 이후 변화가 없다. /연합뉴스

‘삐딱 주차’에 격분 ‘딱풀’ 보복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에 ‘딱풀’을 찔러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1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5)씨는 지난 8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남구 행암동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김모(여·56)씨가 주차해 놓은 무소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에 풀질을 했다.

○이날 자신의 승용차에서 딱풀을 꺼낸 뒤 약 10초간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CCTV에 찍히는 바람에 달미를 잡힌 정씨는 경찰에서 “주차공간도 부족하는데 주차 선을 지키지 않아 매번 피해를 주차 복수심에 풀질을 했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수완지구 상가 매매
(4층중3층 / 즉시입주가능)

85평
모아 A.P.T 앞 (6천세대)
상권 밀집지역
월수익 180만
매가 3억 8천만

보 3천 용 2억5천만

상가매매

①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구호전 사거리(7층)건물
→ 13억5천만(월수익 950만, 보 2억, 용 6억)
②광산구 월계동 1층 40평(1층 가격 최고 저렴)
→ 매가 1억 5천만(보 800만, 용 8천만)
③상무지구 정연오피 상가(상무지구 한국은행 앞)
→ 매가 1억3천만(보 1천, 용 4천5백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업건물 7층상가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3억5천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23평) 월수익 45만 매매가 9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④ 서구 생촌동 대우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기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직접 운영시 1800만**

7층 건물

- ✓ 1층 커피숍 인테리어 중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건물 올 리모델링!

매매가 13억 5천(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